



C-페스티벌 2018.



/코엑스 잇더서울.



/코엑스 C-페스티벌 2018.

/코엑스

관람객 155만 명 경제 파급효과 1430억원 혁신형일자리 창출 1000명

도심 축제 'C-페스티벌 2018' 성료

한국무역협회와 강남구가 주최하고 코엑스가 주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속 문화 축제 'C-페스티벌 2018'이 5일간 화려한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6일 폐막했다. 기간 중 국내외 관람객 155만 명이 찾았으며, 약 143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4번째로 열린 'C-페스티벌 2018'은 무역센터의 민관 16개사가 협약한 마이스클러스터가 무역센터를 아시아 마이스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도심 속 별을 만나다'는 주제 아래 펼쳐진 'C-페스티벌 2018'은 전시·컨벤션과 더불어 문화, 예술, 그리고 한류가 결합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 개념 마이스 문화축제를 선보였다.

공중아트 퍼포먼스, K-POP 콘서트 등을 비롯해 태국, 영국, 브라질, 일본, 오만을 비롯한 아랍 12개국 등 총 20여 개국 200여 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하며 글로벌 문화 축제로 성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은 7일 'C-Festival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간 중 국내외 관람객 155만 명이 찾았으며, 약 143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개최에 따른 63명, 방문객 지출을 통한 840명 등 총 903명에 달하는 고용

'도심 속 별을 만나다' 주제로 개최 전시·예술·한류 결합된 문화축제

다양한 먹거리·소통 콘텐츠로 '공감 페스티벌' 새로운 장 마련

유발 파급 효과도 보였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서는 특히 이번 'C-페스티벌 2018'이 강남 MICE 관광특구 및 MICE산업의 발전, 지역 상권 소득창출에 따른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고 강남구와 강남 MICE 관광특구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태국 및 아랍 12개국이 전시회에 참여해 민간 문화외교의 장을 만들고 청년 작가와 벤처전문가, 중소기업인 등을 참여하게 해 1000여명에게 혁신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혁신형 아이콘의 장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 가족형 방문객,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원을 담은 아트월 등으로 참여와 공감의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초대형 공연과 다양한 퍼포먼스 선보여

올해 행사는 '서울 하늘에서 별을 만나다'는 슬로건으로 7가지의 다양한 별을 테마로 ▲초대형 공연 ▲가족 ▲문화 ▲예술 ▲음악 ▲맛 ▲소통을 테마로 200여 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휴를 맞아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를 찾은 방문객들과 함께했다.



C-페스티벌 2018 드림엔진 블루닷 공연. /코엑스

초대형 공연의 별을 테마로 영국 드림엔진 에이리얼 공중아트 퍼포먼스, 스테이지 오브제, K-POP 스페셜 쇼케이스 등의 프로그램에 케이팝 인기 아이돌인 황치열, 몬스타엑스, 우주소녀의 공연은 많은 관객을 눈길을 끄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가족의 별을 테마로 무료 운영된 다양한 키즈 콘텐츠들은 어린이날 방문한 가족들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아이들의 다양한 미래의 꿈과 희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슈퍼히어로로드'는 아이들이 직접 소방관 등으로 변하는 등 미래의 직업을 체험해 보게했다.

◆글로벌 문화 트렌드 선보여

C-페스티벌 2018은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 글로벌 행사로서의 권위를 다지고 민간외교의 장으로서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태국, 아랍, 일본 등 총 20개국이 함께

하는 세계 문화 축제로 한국·태국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인 2018 타이페스티벌을 비롯해 아랍 13개국이 참여하는 아랍 문화체험관과 일본 최고 요리학교의 일본 핫토리 전통음식 시연회도 함께 진행해 그간 접하지 못했던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밖에 음악의 별을 테마로 한국, 일본, 몽골, 대만, 태국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힙스터 뮤지션들의 음악 공연도 함께 펼쳐져 글로벌 음악시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젊은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졌다.

국내 관객들이 해외 전시관과 공연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체험했고, 국내를 찾은 해외 관광객들은 C-페스티벌의 전통처럼 이어져오고 있는 맥주와 푸드 페스티벌로 국내 음식과 맥주체험도 이어졌으며, 특히 페스티벌 내내 주변 직장인들에게는 다채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청년작가, 벤처, 뉴미디어 등 '혁신 아이콘의 장' 연출

이번 페스티벌은 청년, 벤처 그리고 뉴미디어가 새로운 만남을 통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이끄는 혁신적인 축제로서의 1000여명이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장을 새롭게 연출했다는 평가다.

특히, 청년작가와 벤처 기업인들 그리고 뉴미디어를 선도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초빙해 혁신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으며 변화되는 시장을 예견하는 장을 마련했다. 72초TV 성지환대표, 글랜스TV 박성조대표를 비롯해 개인 크리에이터인 반도샵 애견샵 알바생 허지혜와 영국남

자 조슈아 대릴 캐럿을 연사로 초빙해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혁신적인 콘텐츠와 사업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C-페스티벌 2018은 기존 문화축제와 다르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먹거리와 비어페스티벌을 비롯해 다양한 부스를 유치 전시와 축제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맛의 별을 테마로 메가푸드 페스티벌인 '잇더서울'은 서울의 숨은 맛 집 32곳이 참여해 다양한 미식의 세계로 안내했으며, 특히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색다른 먹거리를 제공했다. 함께 진행된 국내 최대 수제맥주 축제인 그레이트 코리아 비어 페스티벌(GKBF)은 국내의 크래프트 비어 업체 27곳이 참여 국내의 고급 수제 맥주를 축제와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며,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글로벌 맥주 축제로서의 위상과 함께 1,000여명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축제를 주관한 코엑스 이동원 사장은 "이번 C-페스티벌 2018의 성공적인 개최는 코엑스와 무역센터 일대를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브랜딩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글로벌 MICE산업의 트렌드가 문화, 예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등이 결합된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MICE산업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정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광나루 한강드론공원 안전사고 보험 가입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드론 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시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 보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제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으로 정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3000만원이며, 사고 한건당 자부담 비용은 10만원이다.

/김현정 기자

"도심 속 잔디마당서 전통음악 즐겨요"

서울시 야외콘서트 '케렌시아' 개최

서울시는 8일부터 25일까지 돈화문국악당 잔디마당에서 야외콘서트 '케렌시아'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연에는 전통 판소리, 퓨전 국악 등 다양한 국악 장르의 14개 팀이 참가해 매일 색다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은 평일 오후 12시 20분부터 서울 돈화문국악당에서 진행된다. 석가탄신일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3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한편, 남산골한옥마을의 서울남산국악당에서는 5월 한 달간 한옥 콘서트 산조, 정오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오디션 경연 등 국악 축제가 열린다.

공연은 국악당 야외마당과 한옥마을 내에 있는 민씨가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는 오는 30~31일 어린이국악무지컬 '문지기 문지기 문 열리라'가 무대에 오른다.

/김현정 기자 hik1@



서울돈화문국악당 잔디마당. /서울시

고옥에서 봄 밤을 수놓을 한옥 콘서트 산조는 5월 10일부터 격주로 진행된다. 공연티켓은 3만5000원이며,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서울남산국악당의 세부 공연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은 남산골한옥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의 '좋은 간판'에 300만원 상금 지급

서울시 '2018 좋은간판 공모전'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의 수준을 높이고 바람직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의 좋은 간판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2018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을 진행한다

좋은간판 공모전은 기존에 설치된 간판 중 우수 간판 디자인을 발굴하고, 기존에 공개되거나 설치된 적 없는 창의적인 간판 디자인을 개발·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 분야는 ▲좋은 간판 부문 ▲창작 간판 부문 ▲간판개선 지역 부문 등 3개 분야다. 좋은 간판 부문에는 점포주, 옥외 광고업자, 광고디자이너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창작 간판 부문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간판개선 지역 부문은 지난해 간판개선지역 사업을 완료한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좋은간판과 창작간판 대상 수상자에게

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 상장이 주어진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포함한 총 17점에는 총 14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간판개선지역 부문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2점을 선정하며, 별도의 부상은 없다.

수상작은 서울시 간판개선 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시상식 이후 서울시청, 서울시민청, 자치구 등에서 순회 전시할 계획이며,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응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8일부터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서울시 도시비정책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서울시 간판개선사업 등에 활용하고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